

道通眞境의 思想的 特性에 관한 연구

李京源*

目次

I. 서론(序論)	2. 다원성(多元性)
II. 大巡宗旨의 思想과 道通眞境의 教義	3. 창의성(創意性)
1. 大巡宗旨의 思想的 構造	4. 통일성(統一性)
2. 道通眞境의 教義	IV. 道通眞境의 실현과 後天仙境
III. 道通眞境의 思想的 方向性	1. 후천건설의 방법론
1. 근원성(根源性)	2. 도통진경의 實相
	V. 결론(結論)

I. 서론(序論)

대순(大巡)사상의 교리체계는 크게 종지(宗旨)와 신조(信條) 그리고 목적(目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종지는 대순사상의 이념 전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해석을 위주로 하여 다양한 이론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종지에 대한 연구는 대순사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 이르기까지 종지 개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사상적 해석의 정도도 많은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종지 가운데 道通眞境에 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하면서 특히 그 사상적인 방향성을 논하는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가기로 한다.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대순사상의 종지는 크게 열여섯자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합덕(陰陽合德)과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 그것인데 각각의 개념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전체 종지를 구성하고 있다. 설명하자면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새로운 세계의 조판원리(組版原理)를 담고 있으며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인간생활의 확고한 규범의식을 지향하며 해원상생은 인간상호간 또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하고 어울려 생활해 나가는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에 道通眞境은 이와 같은 종지의 내용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 사상적 총체가 실현된 이상적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道通眞境을 이루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특히 그 사상적인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여기서 나아가 끝으로 道通眞境의 구체적 모습인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大巡宗旨의 思想과 道通眞境의 教義

1. 大巡宗旨의 思想的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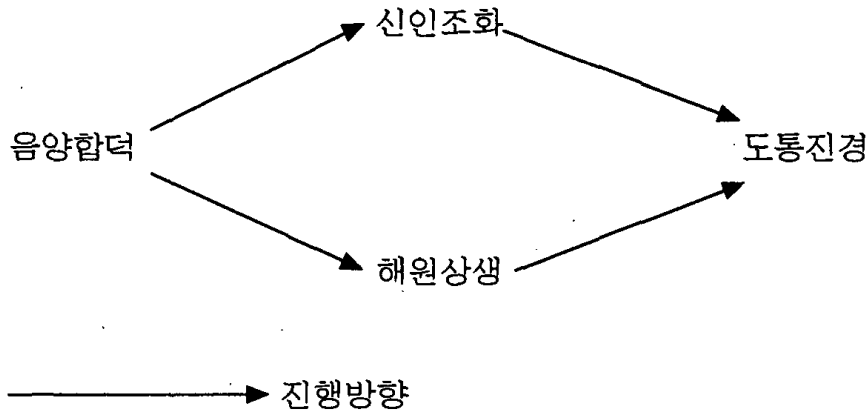
대순종지(大巡宗旨)가 포괄하고 있는 사상적 영역¹⁾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흔히 알려진 학문분야의 영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학 종교 윤리 사회의 분야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이론이 모두 대순종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을 말한다면 먼저 음양(陰陽)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이는 바로 동양철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온 문제인 만큼 그 철학적인 이상(理想)의 경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그리고 신인조화(神人調化)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 大巡宗旨의 사상적 구조에 대해서는 拙稿 「大巡宗旨의 思想的 構造와 陰陽合德論」 「大巡思想論叢」 제 2집, 1997, 대순사상학술원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종지를 크게 철학과 종교, 윤리, 사회로 나누고 각각 그 이상적 경지를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논술하고 있다.

신과 인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날 종교적인 분야의 과제로서 논의되는 부분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 경지로서 신인조화(神人調化)가 대두될 수 있음을 대순종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원상생(解冤相生)에 이르게 되면 원(冤)이란 상대로 인해서 발생한 감정의 상태를 가리키고 나아가 상생(相生)이란 그러한 상대에게 어떠한 태도로서 대할 것이냐의 문제로 생육(生育)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히 인간의 윤리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날 윤리학의 과제를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이념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게 되면 진경(眞境)이라고 할 때의 경(境)이란 하나의 세계 또는 경지를 가리키므로 종지의 이념전체가 실현된 사회상(社會相) 또는 세계상(世界像)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대순종지의 영역별 구조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그만큼 사상적 내용도 풍부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순종지는 그 개념별로 볼 때 상호 어떤 연관하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먼저 음양합덕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말해야 한다면 이는 세계의 조판원리(組版原理)라고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 바탕의 진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만물이 음양합덕으로 생겨나고 하늘과 땅도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이므로 종지를 시작하는 처음에서 음양합덕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이러한 음양합덕의 바탕하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확고한 규범과 조화로운 능력을 가리키므로 음양합덕에 따른 인간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음양합덕 다음에 이야기될 수 있는 순차적 개념이다. 해원상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의 생활상이다. 자연도 서로 상생(相生)으로 흘러가며 인간도 서로 상생(相生)으로 만난다. 즉 음양합덕의 기반하에서 신인조화가 이루어지고 해원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세계는 인류가 바라는 이상세계가 되어 모든 분야에 진리로서

의도(道)가 다 통한 세계가 된다. 이러한 세계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전체세계의 이상적 경지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를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순종지는 하나의 전체적 연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도통진경(道通眞境)이라고 하는 전체 세계상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순종지(大巡宗旨)에서 차지하는 도통진경의 의미는 종지 전체를 귀결(歸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바탕은 음양합덕(陰陽合德)에서 출발된 이상적 경지를 지향하고 있다.

2. 道通眞境의 教義

도통진경의 교의(敎義)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대순종지 전체의 내용속에서 파악되어지는 하나의 귀결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하나의 세계상(世界像)을 논한다면 인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이상적 모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경지가 또한 극치의 차원에서 구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도통진경이 이루어내는 세계의 현상적 모습을 말하는 것과 더불어 본문에서는 그 사상적 특성을 논하고자 하는바 그것이 지향하는 사상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대순사상의 소의(所衣)경전(經典)인 『전경』에서는 대순사상이 지

향하는 사상적 방향성을 암시하는 구절이 발견된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접맥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²⁾

윗 글은 대순사상이 대두하게 된 하나의 종교적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물질문명에 치우친 서양의 문화는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는데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며 이는 나아가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삼계가 혼란해지고 도(道)의 근원이 끊어지게 됨으로써 인류와 신명계 전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의 세계에서는 최고신의 권좌에 계시는 구천상제에 대한 여러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구천의 상제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세하게 되는 과정에서 바로 대순사상의 성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하여 보아야 될 것은 대순사상의 진리성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그것은 윗 글에서 표현된 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제세대도(濟世大道)라는 것,

그리고 천명(天命)과 신교(神敎)의 형태로 인간에게 알려지면서 유교(儒敎)와 같은 기존의 종교를 초극(超克)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볼 때 대순사상의 내용은 진리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의 도(道)를 지향하며 천(天)이나 신(神)과 같은 초월적 대상을 부정하지 않는 신비성 또한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현실문제와 괴리(乖離)될 수 없는 현실성과 함께 기존의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성이 그 주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도통진경이라고 했을 때 도(道)는 바로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므로 도통진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만천하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본 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바는 그 사상적 방향성에 대한 것이므로 도(道)가 통(通)한 참된 경지란 주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크게 네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원성에 대한 것으로 오늘날과 같이 세세하게 갈라진 종교와 이념들이 실상은 그 근원에서 하나의 일치점을 찾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로 도통진경의 사상적 방향성이 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 다원성을 들 수 있는데 오늘날의 종교적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 특수와 보편, 상대성과 절대성, 그리고 열정적 헌신과 관용적 겸손을 동시에 균형있게 취하는 태도가 요구된다.³⁾ 이에 도통진경의 사상적 방향성은 기존의 모든 종교를 포괄할 수 있고 나아가 종교간의 회통(會通)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특성을 내포하는 면을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창의(創意)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통진경의 사상이 단순히 기존종교사상의 장점만을 취합한 형태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에 해당되는 면에 대해서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아가 기존의 종교를 모두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님을 확인하고 이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구천상제께서 사상 초유(初有)의 강림(降臨)을 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3) 김희성 『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종교』, 서울 민음사, 1994. p.27참조

사상의 모방이 아닌 독창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네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통일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원성에서 나아가 하나의 근원적 진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혼재(混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단일한 사상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교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양한 것을 하나의 진리성으로 통일하는 점은 도통진경의 사상만이 지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장에서는 도통진경의 사상적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하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네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道通眞境의 思想的 方向性

1. 근원성(根源性)

도통진경이 지향하는 사상적 방향성 가운데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근원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성이란 오늘날의 종교가 수없이 많은 갈래로서 나누어진 양상에서 그 사상적 갈래를 따라가기 보다는 종교의 근원을 궁구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얼마든지 다양한 갈래가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근원을 따져 나가면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임에 착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종교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 통일적인 양상을 구상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원성을 말하고 있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다음의 전경구절을 통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류 찬명이 어느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상제로부터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는도다.⁴⁾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말씀하시길
 「동학 신자는 최 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4) 교운 1장 46절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고 하셨도다.⁵⁾

첫 번째 구절에서 살펴보면 먼저 요·순의 도를 일컫고 있다. 요(堯)와 순(舜)은 모두 고대의 성군(聖君)으로서 정치와 교화를 함께 통제 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요순의 도는 지금과 같은 종교의 난립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근원적 일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적 방향성은 도통진경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종교적 현실을 말한다면 저마다 신봉하고 있는 교리의 특수성을 내세우고 각각의 신앙체계내에서 고대하는 절대자의 위상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신앙의 완성은 그 신앙의 대상이 자신에게 현현(顯現)해 나오는 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만큼 그러한 궁극자의 존재가 종교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데에서 서로간의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통진경의 교의(教義)에서는 그 신앙의 근원이 하나로서 귀일한다는데 근거하여 그 실재적 대상이 하나의 존재로 현현하는데 따라 근원적 일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근원성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살펴볼 것은 원시반본(原始返本)에 대한 이론이다. 그 구절적인 근거는 다음의 전경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⁶⁾

무신년 四월 어느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⁷⁾

5) 예시 79절

6) 교법 3장 26절

7) 행록 4장 17절

즉 원시반본이란 본래의 근본적인 기준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이념이나 사상에 있어서 분열이 없는 단일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고대의 종교사상을 들어서 그 이념적인 특징을 찾는다면 일상의 정치적 생활과 관련되어 종교적 교화도 아울러 펼쳐진다는 것이다. 이를 이룸하여 성(聖)과 웅(雄)으로 나누었으며 이것이 종교 이래로 바탕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의 사상으로 분파되었으니 그것이 나뉘어지기 전의 모습이야말로 진법(眞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도통진경의 사상적 방향은 이러한 사상적 분파가 다시 나뉘어질 수 없는 근원성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세계의 변화의 방향을 또한 원시반본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시반본의 실례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위의 전경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시대의 창조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인물은 성씨의 처음인 강(姜)성(姓)이 맡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 때 구천상제의 인신강세(人身降世)는 원시반본의 때를 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간의 성씨를 취할 때에도 그러한 이치에 입각하여 화현(化現)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상적 근원성에 대한 것은 도통진경이 지향하는 하나의 사상적 방향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원성(多元性)

다원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종교사상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포용성과도 통한다. 오늘날 종교현상을 대변하는 커다란 조류 가운데 하나가 다원주의(多元主義)인데 이는 분열된 종교간의 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각자의 종교적 입장을 전제하고 나아가 상호 회통(會通)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종교 다원세계에 처한 각 종교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앙을 타종교와 타협하거나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남녀노소, 언어, 민족, 문화의 장벽까지도 초월하는 종교적 신앙이라 할지라도 타종교와의 관계에 이르러서는 그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인류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지막 장벽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종교간의 이해와 사랑은 바로 사

량을 외치는 종교적 메시지들의 도덕적 신빙성을 시험하는 최후의 시금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다원사회에서 신앙인들 상호간의 이해와 사랑은 한 사회 공동체의 평화스러운 존립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자신의 도덕성, 나아가서 그들이 전하는 종교적 메시지 자체의 신빙성에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도통진경이 지향하는 사상적 방향성의 문제는 이상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다원성의 요소를 내포하는 방향으로 그 이론이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다음의 전경구절을 들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도다.⁸⁾

윗 구절에서 언급된 바를 살펴볼 때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함은 곧 도통진경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때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룬다 함은 도통진경에서 지향하는 사상적 방향이 하나의 다원성의 체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각각의 사상이 나름대로의 논리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입지를 충분히 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끔 하는 것은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사상적 경지인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시어 하나의 사상적 다원성을 전제하기 위해 공표하신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드러난다.

훼동도자(毀東道者)는 무동거지로(無東去之路)하고 훼서도자(毀西道者)는 무서거지로(無西去之路)하니라」 고 류 찬명(柳贊明)에게 이르셨도다.⁹⁾

8) 예시 30절

9) 교법 2장 30절

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¹⁰⁾

四월 어느날 김 보경의 집에서 공사를 행하시는데 백지 녀 장을 펼치시고 종이 귀마다 「천곡(泉谷)」이라 쓰시기에 그 뜻을 치복이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옛날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치복과 성환으로 하여금 글을 쓴 종이를 마주 잡게 하고 「그 모양이 상여의 호방산(護防傘)과 같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갑칠은 상제의 말씀이 게서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서편 하늘에 한점의 구름이 있는 것을 아뢰니 다시 명하시기에 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들어와서 한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것을 여쭙었더니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四明堂)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이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이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이오,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니 六月十五日 신농씨(神農氏)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桿門)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¹¹⁾

윗 글의 첫 번째 인용문을 보면 “동쪽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없고 서쪽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한 것은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사상적 갈래를 놓고 하나의 전체적 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원적 시각에서 서로를 바라볼 것을 가리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상적 갈래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본질과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단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의 인용문에서 설명되어 있다, 즉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형체(形體)’라고 하는 개념으로 압축되고 이는 사명당(四明堂)에서 조화를 부려나가는 영역을 담당하며, 선도(仙道)의 진리는 조화(造化)의 진리를 주장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무병장수를 실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유도(儒道)는 많은 예법과 절도의 진리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와 유교와 선도는 나름대로의 종교적 진리성을 담고 있으면서 그 실질적인 공효(功效)

10) 공사 3장 39절

11) 행록 5장 15절

를 이루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통진경의 교의(敎義)를 이야기 할 때에도 이러한 유불선(儒佛仙)의 종교를 하나의 다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서로 회통(會通)할 수 근거를 제시하는데 사상적 의의를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의 다원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대순사상의 역할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의 전경구절을 통해 볼 때 잘 알 수 있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 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달에 평안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¹²⁾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샐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 ¹³⁾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 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¹⁴⁾

위의 첫 번째 예문에서 볼 때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진 상황이며, 이 때 발생한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으면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도통진경에서 다원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복잡다단해진 현실사회에서 상호 공존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

12) 예시 73절

13) 예시 12절

14) 교법 3장 23절

상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열린 마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정수를 가려 뽑아서 하나의 전체 세계를 이루게 되면 곧 만인이 화평하게 어우러져 사는 이상세계가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의 예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통진경의 사상적 방향성은 하나의 다원성속에서 그 교의(敎義)가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창의성(創意性)

도통진경의 사상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근원성과 다원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단순히 전대사상의 장점을 인위적으로 융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독창적인 안목과 탁월한 식견으로 정립되어지는 신사상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사상적 특질은 또한 대순사상이 구천상제의 강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기반하고 그러한 상제의 권능에 의해서 실현되어지는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져도 무방한 것이다. 여기에 도통진경의 사상적 방향성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말한다면 창의성을 들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제의 말씀은 이를 살펴보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하루는 상제께서 가라사대 「대범 판안에 있는 법을 써서 일하면 세상 사람의 이목의 저해가 있을 터이니 판밖에서 일하는 것이 완전하리라」 고 이르셨도다.¹⁵⁾

상제께서 광구 천하하심에 있어서 판안에 있는 법으로써가 아니라 판밖에서 새로운 법으로써 삼계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니라 하셨도다.¹⁶⁾

즉 기존의 종교와 사상은 모두 판 안의 법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 안의 법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법이라면 또한 기존의 사상가들에 의해 논란과 탄핵

15) 행록 2장 14절

16) 예시 4절

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그 이상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상제께서는 아예 판 밖의 법으로 모든 일을 꾸미시게 된 것이다. 하지만 판 밖이라고 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가지고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표현하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는 상제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¹⁷⁾ 라는 말씀은 기존의 종교사상을 인정하고 또 그 바탕으로 하되 그 자체의 연장이 아니라 승화 극복하는 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고견 원려 왈지(高見遠慮曰智)라고 하고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¹⁸⁾이라고 한 것은 그 지혜로운 진리가 여타 사상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이미 근본이 되고 또 만유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성이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니라.』¹⁹⁾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사상적 창의성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사상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전경의 다음 구절은 이와 같은 사상적 창의성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혁함이요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다.²⁰⁾

즉 상제의 천지공사는 인간세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천지 우주에 까지 이르는 세로운 세계의 창조에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신천지에 해당되므로 단순히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실재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능을 지닌 절대자 구천상제의 권능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17) 교운 1장 36절

18) 제생 43절

19) 교법 3장 27절

20) 예시 5절

그리하여 상제의 권능이 유일한 만큼 그 사상적 경지도 유일하게 인식되어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며 예전에도 없고 이제도 없으며 이어받은 것도 아니며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닌, 오직 상제에 의해 지어지는 유일한 독창성을 지닌다고 표현한 것이다.

4. 통일성(統一性)

도통진경의 교의는 그 사상적 방향성에 있어서 또 하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통일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모든 종교적 분파가 하나의 근본 속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면 나아가 다시 하나의 진리속에서 합쳐짐으로써 이념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통진경의 시대는 진리로서의 도(道)가 온 천하에 두루 통하는 세상이므로 이념과 사상에 있어서도 그 통일적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통진경의 사상적 방향성은 모든 사상적 갈래를 하나로 모으는 통일적 성향을 가지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도통진경의 사상이 지향하는 통일적 성향에 비추어 그 사상적 핵심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전경구절을 보자.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²¹⁾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대순사상에서 도통진경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사상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중찰인의(中察人義)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도통진경의 창의성과 더불어 그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중찰인의란 인간의 행위와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처세문제를 지혜로써 풀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천문(天文)과 지리(地理)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며 최종적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21) 교법 3장 31절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心)'에서부터 찾아진다.

유월 어느날 신 경원(辛敬元)이 태인에서 사람을 급히 보내어 순검이 날마다 저의 집에 와서 상제의 계신 곳을 묻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상제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급한 일로 오는 사람이 도중에서 지체하다가 늦어진 것은 무슨 일이뇨」 꾸짖으시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는 길에 당화주역으로 운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므로 잠깐 지체되었아오니 용서하소서」 하니 상제께서 곧 글을 써 주시며 「이 글을 경원에게 주고 보고 난 후에 곧 불사르라」 이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니라.

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²²⁾

위의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심(心)의 내용은 신명(神明)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우주적인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므로 이 마음을 서로 통할 때 중찰인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통진경에서 이야기되는 사상적 핵심은 인간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종교사상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서 그 사상적 대체를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본질은 본래 단일한 것으로 어떠한 사상적 갈래도 나뉘어지지 않는 본체라고 일컬을 수 있으므로 사상적 통일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마음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²³⁾

22) 행록 3장 44절

23) 예를 들면 한국의 불교사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의 회통(會通)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인간의 일심(一心)에 기인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원효의 일심사상은 중관(中觀)학과 유식(唯識)학을 통일시키는 매개가 되며, 고려 지눌의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은 정혜(定慧)쌍수(雙修)로서 깨치고 닦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한다. (황준연 『한국사상의 이해』 박영사, 1996, pp.77~98참조)

상제께서는 이러한 마음에 대한 공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한 글귀가 있는데 곧 대학(大學)상장(上章)과 서전(書傳) 서문(序文)에 대한 것이다.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서전(書傳) 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 하셨느니라. 상제의 부친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읽지는 못하였으나 끊임없이 읽었으므로 지혜가 밝아져서 마을 사람들의 화난을 덜어 준 일이 많았도다. 24)

그후에 상제께서 종도들의 지혜를 깊게 하는 일에 골몰하시더니 어느날 종도들에게 「대학우경(大學右經) 일장을 많이 외우라. 거기에 대운이 있나니라」 고 말씀하셨도다. 25)

어느날 상제께서 형렬에게 대학에 있는 우경 一장을 외워주시니 그 글은 다음과 같도다.

蓋孔子之言而曾子述之 其餘十章 則曾子之意而門人記之也 舊傳 頗有錯簡 今因程子所定而更考經文 別有序次如左 26)

대학(大學)과 서전(書傳) 서문(序文)의 글은 비록 유교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인간의 마음을 통하는 것으로 핵심을 삼고 있으므로 상제께서 이를 인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서전 서문에서는 채침이 “천년뒤에 태어나서 천년전의 일을 밝히고자 하니 또한 어렵다, 그러나 이제삼왕의 치세(治世)는 도(道)에 근본하고 이제삼왕의 도는 마음에 근본하니 그 마음을 얻으면 도(道)와 치세(治世)를 진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7)라고 하여 마음에 대한 공부가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대학 상장의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공자(孔子)와 증자(曾子)와 그 문인(門人)은 서로간에 마음의 전함으로 인해 그 뜻을 조술(祖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도통진경에서 추구하는 통일성이란 모든

24) 교법 2장 26절

25) 교운 1장 55절

26) 교운 1장 56절

27) 서전(書傳) 서문(序文) 「且生於數千載之下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 亦已難矣, 然二帝三王之治 本於道 二帝三王之道 本於心 得其心則 道與治固可得而言矣」

종교나 이념의 갈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찾는다는데 있으며 이는 다름아닌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말이나 글로 표현된 다양한 사상들은 그 표면적인 차이에 의해서 모든 시비가 발생했던 것이며 이것이 모두 인간 보편의 한마음에 기반을 두고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을 서로 통하는 공부를 했을 때 모든 종교와 이념은 통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통진경의 사상에서 언급되는 도통(道通)의 경지는 사상적으로 볼 때 인간의 마음을 통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또한 중찰인의로서 표현되는 최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V. 道通眞境의 실현과 後天仙境

1. 후천건설의 방법론

앞장에서 도통진경의 교의와 그 사상적 방향성을 논하였던 바 이 장에서는 도통진경의구체적인 실현과 그 세계로서의 후천선경의 실상을 논하기로 한다. 먼저 도통진경의 세계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경(仙境)세계(世界)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보기로 한다. 그 방법론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무엇보다도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는 나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²⁸⁾

즉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본령은 해원을 위주로 하여 위기에 빠진

28) 공사 3장 5절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그럼으로써 화평한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천지공사의 주요 방법이라고 하면 윗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고의 신명을 조화(調和)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세계가 진행되어 나갈 때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져 후천선경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상제의 초월적인 권능을 내포하고 있다. 상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능력을 행사하여 새로운 천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곧 종교적 신앙심을 위주로 하여 깨달아 질 수 있는 대순사상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신명을 조화’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전경을 통해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²⁹⁾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³⁰⁾

위의 첫 번째 예문에서는 선경(仙境)건설(建設)을 이루기 위해서 서양으로 건너간 동양의 도통신들을 불러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도통신은 서양의 문명을 일으킨 신명을 말하며 인간의 지혜를 열어주기 위해서 인간과 교감하는 신을 일컫는다. 그런데 그 신명들이 역사적으로 동양에 주로 존재하다가 진묵의 원(冤)으로 인해 서양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세계 창조를 위해서는 그 신명들을 불러와서 인간계의 문명을 일으켜야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의

29) 권지 2장 37절

30) 교법 3장 44절

능력은 바로 구천상제의 권능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로써 평범한 인간의 사고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제께서 신명을 조화하는 내용의 하나로서 후천선경의 인간들을 위해 의식주를 무한정하게 풍요롭게 베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 신명의 조화로 인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한편 상제께서는 후천선경 건설을 위해 신명을 조화하는 방법외에도 직접 인류의 고통을 대속(代贖)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 구체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욕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데가 없으리라.³¹⁾

상제께서 단식하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으며 인류의 고통을 선도적으로 겪으시는 것은 장차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도화낙원을 이루어주시려는 상제의지의 표명이라고 하겠다. 도통진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 자체에 담겨진 상징정보보다는 그 구체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종교적이면서 역사적인 근거로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실상(實相)

도통진경은 모든 분야의 진리가 하나로 통하여 어우러진 이상세계를 표현한 말이다. 단지 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누리는 지상선경으로서의 도통진경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의 전경구절을 검토해보자.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31) 예시 82절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³²⁾

위의 내용은 도통진경 즉 후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하가 한 집안이 된다는 점은 인류문화의 통일적인 양상을 가리키며 위무와 형벌을 쓰지않고 조화로서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린다함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없다고 한 것은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모습이다.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음은 인간의 정신적 해탈의 경지를 말하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한다함은 곧 육체적 해탈의 경지를 말한다. 빈부의 차별이 없음은 경제적 이상이 실현된 것이며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됨은 지역적 경계가 없는 단일 문화권과 우주공간으로의 자유로운 여행을 말한다.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세계에 통달하는 것은 인간의 경지가 초월적 신의 경지에 합일하고 있음을 말하며 수화풍의 삼재가 없어져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 된다함은 자연환경의 이상적(理想的)인 변화를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후천선경의 실상은 인간의 문화적 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과학문명의 성숙,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경지, 그리고 자연환경등에서 고루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이를 토대로 인간은 무한한 풍요를 누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좀더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인간의 문화적 환경을 언급한 구절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鷄龍山)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 그자가 다시 「언어(言語)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 하오리까.」 고 묻기에 「언어도 장차 통일되리라」 고 다시 대답하셨도다.³³⁾

32) 예시 81절

33) 교법 3장 44절

인간의 문화가 다양한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후천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어 통일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자 세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³⁴⁾

윗 구절은 자연환경의 변화가 이상적(理想的)으로 이루어져서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아주 적합하게끔 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³⁵⁾

윗 구절은 인간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평화로운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 하셨도다.³⁶⁾

상제께서 어느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네가 나의 말을 좇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좇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 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 대로 두어야 옳으나 걸어야 옳으나.」 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 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딴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³⁷⁾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34) 교법 3장 41절

35) 예시 80절

36) 공사 1장 31절

37) 공사 1장 35절

왕래하리라.³⁸⁾

윗 구절은 과학문명이 고도로 성숙되어서 인간에게 지극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며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최고의 성숙단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곧 도통진경임을 주장한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제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³⁹⁾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말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⁴⁰⁾

윗 구절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경지가 또한 현재와는 다른 이상적 경지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내용이다. 즉 도통진경에서는 인간도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한껏 드러내게 되며 이는 도통이라고 하는 경지를 획득하여 그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서 이야기한 대순종지와 도통진경의 의미는 인간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누구나가 달성하는 것이 곧 도통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두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여 표현한 말이 바로 인존(人尊)이며 이러한 인존의 의미는 대순사상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도통진경은 하나의 구체적인 선경세계이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이상적(理想的)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예서 75절

39) 교운 1장 34절

40) 교운 1장 41절

V. 결론(結論)

도통진경은 대순사상의 종지를 구성하는 내용가운데 가장 최종적이며 결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그리고 해원상생이 모두 하나의 영역에서 일정한 해석이 가능한 반면 도통진경은 이와 같은 사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모두 그 사상적 귀추를 논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류는 오랜 역사를 거쳐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번도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시련의 과정을 밟아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류 상호간의 반목과 투쟁을 불러 일으키는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주원인이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그 진정한 이상세계는 인류의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절대사상의 출현과 또 이를 현실적으로 이룩해 낼 수 있는 절대 권능자의 등장만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가치관이 혼재되고 윤리도덕관념이 타락해 버린 현실에서 이상과 같은 절대 이념의 출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에서 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에는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모든 종교의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의 강림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인해 '천지공사'라고 하는 삼계(三界)개벽(開闢)의 역사(歷史)를 현실적으로 단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이념적 토대가 되어 신앙인들의 실천수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은 그 구체적인 실현의 과정에 놓여져 있다고 보겠다. 대순사상의 종지에서 언급되는 도통진경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구천상제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도통진경에 관한 이해는 오늘날의 대순사상의 역할과 사명을 자각하는 것과 더불어 깊은 연관을 지닌다고 아니할 수 없다.